김영록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통합청사 동부권 통합발전, 화합 상징물로 만들터"

"청사 유치 실패한 시군 타기관 유치 등 다각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형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새천년을 맞아 미래 성장 확보를 위해 시군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 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도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매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4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이달중 시군 공모를 시작해 8월중 사업선정과 협약체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은 지금까지 공무원 위주로 추진된 부서별 산발적 일회성 칸막이사업을 과감히 깨뜨려 주민 주도 종합 패키지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기간과 투자계획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등 충분한 숙성 기간을 거쳐 주민 참여형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시군에서 그동안 재원 문제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기초·광역의원,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동부권 통합청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동부권의 통합발전과 화합의 상징물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동부권 통합청사 유치 못한 시군에 대해 다른 기관유치, 지역현안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여수와 순천이 경합을 벌인 동부권 통합청사 부지로 순천 신대지구를 결정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여수시는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이 조속히 유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양시는 도립미술관을 2020년에 차질없이 개관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해양관련 공공기관유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목포시는 전남통일센터와 전남청소년지원센터, 전남스마일센터를, 나주시는 한전공대, 빛가람복합혁신센터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번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가 선정을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에 입지가 확정된 동부권 통합청사가 동부지역의 통합과 새로운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전남 모든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동단결의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이용섭 시장, 광주시 인권정책 유엔에 소개

'인권도시 광주, 그리고 지구적 협력' 주제 개회연설

광주시의 인권정책이 유엔(UN, 국제연합) 회원국들에 모범사례로 소개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와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에 관한 세계지방정부연합 위원회(UCLG-CSIPDHR)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지방정부와 인권 협의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 이용섭 광주시장을 개회연설자로 초청했다.

이번 회의는 '인권 증진?보호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 시장은 유엔과 공동주최 기관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위원회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권도시 광주, 그리고 지구적 협력'에 관한 주제로 개회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는 제네바, 로마, 비엔나, 위트레흐트, 바르셀로나, 플레인코뮌 도시연합, 애틀란타, 멕시코시티, 리마, 카트만두, 울란바토르, 젤버 등 인권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정부와 유엔인권시스템 간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정인화 의원, 자연재해 보행자 보호 법안 발의

"교통약자 보호·이동편의 증진 최선"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시설을 각각 포함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 대책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은 아동과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예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교통약자의 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을 돕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신민호 도의원 "주 52시간 근무 맞춰 영양사·조리종사원 증원해야"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에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은 지난 5일 전남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기숙사 월요일 조식 운영방침을 지적하며 학생중심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민호 의원은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월요일 조식은 아이들이 한 주를 활기 있게 시작하는 힘이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기숙사 운영 등을 감안해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을 적정인원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 근로기준에 맞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동구, 행안부 재능꿈나무 지원 공모사업 선정

광주 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공모에 '재능꿈나무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디자인단'이란 정책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공무원, 전문가인 대학교수·대학원생 등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새로운 정책개발 모델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접수된 160여 개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중 36개를 선정해 연구운영비를 지원해왔다. 동구는 대학과 연계해 저소득 재능아동을 지원하는 과제가 선정돼 국민대학교테크노대학원과 함께 기초자료조사 등 과제를 수행했다.

서구,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 지원

광주 서구가 음식점의 주방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의 주방 후드, 덕트 청소 및 환풍기 교체 지원을 통해 노후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업소별 최대 100만원, 청소 및 교체 비용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서구 관내에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식사류 취급 일반음식점으로 100㎡ 이하 중식당 및 치킨 취급 업소 등이다.

음식점 노후 주방환기시설 개선 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서구청 보건위생과(☎062-360-7675)로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 빅스포 뒤 푸른길공원 주차장 확대 조성

광주 남구는 푸른길 공원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빅스포 뒤편 공간에 노상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구는 12일 "빅스포 뒷 공간에 노상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상 주차장이 확대 설치되는 곳은 진월동 316-7번지 등 6필지로, 빅스포 뒷쪽 복개도로 225m 구간이다.

남구는 양쪽 차선에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주차 차량 면수도 기존 23면에서 43면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북구, 전국 여행사 대표 · 사진작가 초청 팸투어

광주 북구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여행사 대표, 사진작가, 파워블로거 등 여행업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남도여행 팸투어를 실시한다."라고 12일 밝혔다.

북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환벽당, 취가정 등 시가문화권에 산재한 누정문화와 생태자원 등을 널리 홍보하고 북구와 광주?전남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해 남도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팸투어 첫째 날인 15일에는 광주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관련 영상 시청 및 참배를 하고 담양 죽녹원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다녀와 숙소인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 공연을 관람한다.

둘째 날에는 호수생태원, 환벽당, 취가정, 소쇄원을 방문해 누정문화의 풍류를 체험하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펭귄마을 방문 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게 된다.

광산구, 다문화 음식점 자율위생관리점검표 배부

광주 광산구가 광주세계수영대회 D-30일을 맞아 외국어 자율위생관리점검표를 제작해 다문화 음식점에 나눠줬다.

대회가 열리면 207개국, 1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다문화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표 배부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영업주들이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

업주들은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6개 언어로 된 위생관리점검표를 이용해 가게를 점검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밖에도 식품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우산동 선수촌과 남부대 주경기장 주변 음식점 위생 컨설팅과 식중독 예방 캠페인도 추진해왔다.

임형택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설립 ■기장대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업진단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목포 · 장성 · 해남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